

간호대학생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경험

이창금, 안준희*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Grace Changkeum Lee, Junhee Ahn*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unj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K시 소재 K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0명의 학생들로 남학생 3명, 여학생 7명이었으며, 연령범위는 21세에서 45세까지이며, 거주형태로는 5명은 자가, 3명은 자취, 2명은 통학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들을 사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경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는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집하였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의 의미들로부터 12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주제모음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립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 <갑작스런 수업방식의 변화에 부적응>, <실습에 대한 부담감>, <예비 간호사로서 현실을 직시함> 등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19 시대 간호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experiences of college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participants were 10 college nursing students (junior and senior years) enrolled in a university in K c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May 1 to June 30, 2020.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proposed by Colaizzi was applied for data analysis. We identified a total of 6 theme clusters: increased fear of an infection, feeling isolated due to the changed way of life, feeling perplexed about unexpected circumstances, inability to adapt to the sudden change in classroom instruction, feeling burdened about clinical practice, and confronting the reality as a preliminary nurse. The analyzed data revealed that subjects had numerous experiences about COVID-19. We believe there were necessity and significance to conduct this study during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This analysis can serve as a useful resource for discussing issues related to nursing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era.

Keywords : Experience, COVID-19, Nursing Student, Phenomenology, Qualitative

*Corresponding Author : Junhee Ahn(Kunjang Univ.)

email: jhahn@kunjang.ac.kr

Received July 22,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August 13,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에 확산된 신종 바이러스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 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정의되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다[1]. 2019년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가 보고된 후로 코로나바이러스19라고 명명된 새로운 감염증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팬데믹(pandemic) 상태로까지 발전되었다[2]. 2020년 7월4일 현재 217개 나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19 누적 확진자 수는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확진자가 19만명 증가했으며, 총 사망자는 52만8092명에 이르렀다. 전세계 일일 확진자가 20여만 명씩 불어날 정도로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3].

강력한 방역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합으로 비교적 코로나바이러스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사회거리두기,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 및 공개와 자가격리, 음압병동 확보를 통한 확진자 치료 등 정부의 주도로 코로나바이러스19를 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4].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벌써 6개월이 넘도록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 감염에 대한 염려, 갑작스런 생업의 중단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 접촉 관계의 축소와 비대면 관계의 일상화, 각종 사회적 관계의 상실과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등 코로나바이러스19가 열어놓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5].

지난 몇 개월간 불어 닥친 문명사적인 대전환은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던 전통적인 대면 수업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전면 중단되었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교육계 전면에서 등장했다. 교육자와 교수자 모두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디지털매체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감수해야 했고, 이제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고 있다[6]. 미래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었고, 각종 현장 실습도 제한적인 대면 실습이나 대체 실습으로 전환되었다.

간호 돌봄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19 대확산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

은 간호대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감염병 대상자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임상 실습을 앞두고 환자 간호를 준비해야하는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의미 있게 고려하고 탐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세계적 대확산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임상 실습을 앞두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겪었던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19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간호교육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는 신종 바이러스로서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곳곳에 확산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종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확산된 중국에서 지난 몇 개월간 간호대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해서 겪었던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체성 위기를 분석한 연구가 최근에 발표된 정도이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적인 구조에 대해 Colaizzi[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탐색하여,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19 시대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교육의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경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의 생생한 경험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구조를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K시 소재 K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3학년 7명과 4학년 3명(남학생 3명, 여학생 7명)으로 총 10명으로, 연령범위는 21세에서 45세까지이며, 거주형태로는 5명은 자가, 3명은 자취, 2명은 통학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면담 전에 연구 목적, 필요성, 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학회지에 출판될 것을 고지하였고,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철회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 폐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자료 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면담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여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세미나실을 이용하였다. 면담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기간 동안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하여 좋았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예비 간호사로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등의 개방형 질문들을 사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경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의 상황이나 분위기,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에 50분 정도로 참여자당 평균 2회 실시되었다. 면담이 총 20회를 넘게 진행되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료하였다. 면담은 모두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 후 번호를 붙여 파일로 저장하여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을 다 마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6천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간호대 학생들의 경험을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참여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후 그것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원자료들로부터 느낌을 얻고자 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들을 추출하고자 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추출한 유의미한 진술들을 토대로 그 의미를 발견해내고자 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앞 단계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것을 통해 드러난 의미들을 의미(meanings),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조직하고자 했다. 일단 주제들이 확립되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에게 의미와 주제와 주제모음들을 제시하여 자문을 구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연구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시도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연구주제의 근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바꾸고자 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본질적인 구조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직접 물어서 확인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포함시켰다.

2.5 자료의 엄격성

본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9]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은 심층면접의 내용과 분석된 주제들이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진들은 자료분석 시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치면서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의 의미들로부터 12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Table 1). 주제모음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립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 <갑작스런 수업방식의 변화에 부적응>, <실습에 대한 부담감>, <예비 간호사로서 현실을 직시함> 등이었다. 간호

대학생들의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경험의 본질적 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주제모음 1: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

3.1.1 자신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겼던 자세에서 언제든지 자신도 감염되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양한 감정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나하고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다녀갔던 목욕탕에 갔는데 무서웠어요... 아! 나도 걸릴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저번에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개가 기침을 해서 계속 불안했어요. 지금은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얼른 피해요. 내가 기침해도 눈치가 보여요.(참여자 2)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계속 문자로 오잖아요. 신상이랑 동선이 다 공개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몇시에 마트에서 계란 사가신 분 찾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와! 확실하게 하는구나... 계속 확진자에 대한 뉴스를 자주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동선도 확인해요.(참여자 3)

구로구 콜 센터 감염 때문에 군산에 있었어요. 자취방 앞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물에서 배송해서 먹고 꼼짝도 못했어요. 죽으면 어떻하지?... 유서를 미리 써야 될까? 경제적으로 고생하시는 엄마께 제일 죄송했어요. 내가 죽으면 친구들이 슬퍼할까?... 감염될까봐 엄청 무서웠어요.(울먹거림)(참여자 6)

코로나 사태가 재앙 같아요. 너무 무섭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까봐 두렵고 더 큰 불안감이 있어요.(참여자 1)

무섭죠. 이게 언제 끝날지...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딱 그 생각!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감염병이 이렇게 많이 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참여자 8)

3.1.2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함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를 접하게 되면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통해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

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런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고 표현하였다.

마스크 쓰는 게 제일 불편해요. 알바할 때 마스크 쓰고 하면 답답해요. 땀나고, 안경에 김 서리고...입주변에 계속 뭉가 올라와서 짜증나요. 그래도 화장안하는 것은 편해요... 나도 감염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꼭 쓰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왜 자기만 생각하지?... 화가 나요.(참여자 1)

매체며 학교 측에서도 조심해라 해서 최대한 안나갔어요. 제 자신이 걸리면 남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상황에서는 학교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했죠. 손을 많이 씻고, 손이 다 하얗게 될 정도로 씻었어요.(참여자 9)

3.2 주제모음 2: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립감

3.2.1 활동제한으로 인한 무력감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그동안 누렸던 자유스런 일상생활이 제약당하고 무엇인가에 구속당하여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표현했다. 처음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어 자유가 많아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방에만 갇혀 지내게 됨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졌다고 표현했다.

활동을 못 해서 답답함이 제일 힘들었어요. 새장에 갇혀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섬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삶이 어려웠어요... 어두웠어요...(참여자 6)

처음에는 일찍 안일어나도 돼서 행복하고 편했어요. 근데 점점 뭔가 이상하다?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느낌이 들고... 개학이 자꾸 미뤄지면서 아! 이상하다, 상황을 생각해 봐야 했어요. 지금도 개강을 했는데 방학느낌이예요. 경각심도 없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요.(참여자 4)

아, 이려고 맨 날 있어야 되나? 놀러갈 데도 없고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원래 집순인데도 나가고 싶었어요.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통증, 고열 이런 게 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두 번 다시는 안 겪고 싶을 것 같아요.(참여자 8)

3.2.2 생활의 질서가 무너짐

참여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자유와 자기 방과 집 주위에만 머물러야 하는 생활로 인해 그동안 유지했던 생활의 질서가 무너졌고 이로 인한 상실감을 친구와 전화로 소통하면서 달래야 했다고 표현했다. 또한 낮과 밤이 바뀌게 되고 집안에만 머물러서 시간 개념이 없어져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 방황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산책도 하고 그랬지만 친구들 만나기가 어려워 많이 아쉬웠어요. 낮에 잠을 많이 자고 새벽에 자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참!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요. 조별과제 때문에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면 낮과 밤이 바뀌어서 연락이 안돼요.(참여자 10)

집안에만 계속 있으면 햇볕을 못 받으니까 제 생활이 깨져요. 해가 지면 아! 밥을 먹어야겠구나. 해가 뜨면 이제 일어나야겠구나. 그런 걸 아는데... 물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돼요... 이 기간이 몇 달 씩 계속되니까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못해요... 핸드폰으로 출석체크만 하고 강의는 나중에 듣고 술마시고 영화 보고... 시간배열이 엉망이에요.(참여자 2)

조금만 버텨야지... 2-3개월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라도 하나 잡고 있어야지... 그나마 과제가 있으니까 사는구나! 만약 과제가 없으면 혼자 누워서... (한숨) 그나마 친구들과 통화하고 가족들과 안부 묻고 하는 게 유일한 통로였어요. 대화를 하는 것도 만나서 하는거랑 SNS 상으로 하는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얼굴을 보고 만나면 표정도 보고 말투도 보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참여자 1)

3.3 주제모음 3: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

3.3.1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해 당장 부모나 가족이 일자리 감소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본인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갑자기 누리게 된 자유 시간에 생활비를 벌려고 알바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게 되어 좌절하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우리 집은 남편이 버는데 네 명이 학생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는 “내가 지금 이려고 있는 게 맞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냐?”... 마음이 무거워져요.(눈물)... 우리 엄마도 실질적인 가장이라 참모로 일하시는데 식당일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반 이상 줄어 들고 아버지 병원비까지 대느라 힘드세요. (참여자 2)

동영상강의가 끝나고 알바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는 떨어지고 막막하더라고요... 할 수없이 그전에 벌어들였던 것을 털어 쓰고 있어요.(참여자 1)

3.3.2 휴학을 구체적으로 계획함

참여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한 알바 자리마저 갑작스런 부상으로 그만두게 되어 상실감이 더 커졌고 급기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휴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용돈이라도 내가 벌려고 알바를 했어요. 근데 서빙하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골절됐어요. 과제를 타이핑해야 하는데 손가락을 다쳐서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결국 알바도 그만 두게 됐어요.(참여자 4)

엄마, 동생, 나 셋이 사는데 동생이 재수하고, 엄마 혼자 간호조무사 하셔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주시니 너무 미안해요. 대면수업도 없는데 방세며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학기에 휴학하려고요...(참여자 6)

3.4 주제모음 4: 갑작스런 수업방식의 변화에 부적응

3.4.1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불편감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해 처음 접하게 된 비대면 수업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 표현했다. 특히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직접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없는 방식의 수업이 주는 갑갑함과 갑자기 늘어난 과제 폭탄에 난감해 하였다고 표현했다.

나는 수업을 나가지 못한 것이 어려웠어요. 국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심리적으로 압박감, 공부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국시를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요. 교수님 얼굴 보고 모르는 것은 바로 질문해야 수업 같아요. 그나마 화상 강의를 들을 때는 교수님 얼굴이 보이니까 좀 꺼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업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8)

과제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과제가 폭탄처럼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거기에는 수업이 불안정해서 과제 정보 파악이 어려웠어요. 매일 과제하느라 정신없었어요.(참여자 2)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해를 잘 하는지 의심이 들었고 내용과과에 대해 막막함이 제일 컸어요. 시험기간이 다가오니까 불안해요.(참여자 2)

3.4.2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짐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직면하게 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험에 대해 몹시 불안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또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게 되었고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저는 코로나보다 시험이 더 불안해요. 학점이 2점 후반이라 올리고 싶거든요.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서 공부하고 싶어요. 주말에는 알바하느라 시간 뺏기고, 시험 기간에는 예민해지고... 나는 항상 왜 이럴까?... 성적 스트레스로 슬퍼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쉬워요.(참여자 5)

나가기 어렵고 집에만 있다보니 화상강의 틀어 놓고 휴대폰으로 뉴스보고 집중력이 없어서 성취감이 없었어요. 도서관이라도 가고 싶는데 문 닫아서 독서실이라도 가야 하나... 집에서 강의를 듣는 것은 집중력이 100이라면 50정도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국시 걱정, 실습걱정, 취업 준비로 바쁜데... 미래가 걱정이예요. 나만 나쁜 병원에 취직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교수님들께서 학교에 오라고 하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집중이 잘 되거든요.(한습) 취업이 많이 걱정돼요.(참여자 10)

3.5 주제모음 5: 실습에 대한 부담감

3.5.1 실습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해짐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해야 했고 이에 따라 임상 실습이 미뤄질까 봐 걱정하게 되고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참여자들은 간호대학생으로서 실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박한 실습 여부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을 표현하였다.

실습을 앞두고 있는데 또 미뤄지고 못 하게 될까봐 걱정이예요.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실습은 간호학과에서 메인 이벤트라서 하고 싶어요... 실습을 생각하면 환자와는 다른 신분으로 병원에 가는 거고 진짜 간호사의 길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레요.(참여자 6)

병원을 먼데로 가게 되면 거기에도 방을 얻어야 되는데 군산에도 자취방을 유지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이 어려워져서 군 제대한 뒤로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실습을 잘 마쳐야 졸업을 하고 독립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죠...(참여자 3)

이번 학기 동안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잘 할 수 있을 까 자신감이 없어요.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아직 안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혼날까봐 무섭고 두려워요. 지식이 부족해서 대상자를 대할 때 떨릴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토할 것 같은 기분이고 잠을 잘 못 자서 걱정이예요.(참여자 7)

3.5.2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실습을 간호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 과정으로 실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임상현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표현했다.

실습이 걱정 돼요. 체력이 딸리고 나이 먹었다고 갈구는 것 아니야?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병원은 안전한가? 요양병원에 친척을 방문하러 갔는데 면회를 안 시켜줬어요... 요양병원은 안 되는데 병원은 실습이 가능한가? 교내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참여자 2)

병원에서 실습을 안 받아 준다는 게 이해 되요. 저희가 균을 묻혀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고 배울게 많잖아요.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다 지금 실습을 나가봐야 이 기회에 더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험부담은 클 수 있어요...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터치도 하고 욕창관리도 해야... 관찰만 하는 것은 실습이 아니예요.(참여자 9)

3.6 주제모음 6: 예비 간호사로서 현실을 직시함

3.6.1 감염위험을 넘어서는 책임감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산으로 자신들이 움츠러 들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힘을 얻고 본받으려 하고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곳이라

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대구에서 자원 봉사하는 선배를 봤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가족이 있을텐데 존경스러워요. 나도 가서 도와주고 싶었는데...면허증이 없어서 갈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 할까봐...전염되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그게 무서우면 이쪽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참여자 1)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대구에서 의료진이 흡사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남들은 몰라주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것에 비해서... 방호복을 잘 입었다고 해도 완벽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밀 듯이 들어오면 내 건강도 생각나고 내 가족도 생각 나고 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간호사는 전쟁이 나면 전장에 나가야 한다구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다시오면 나도 발 벗고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6)

제가 의료진이 됐을 때 다시 이런 일이 터지면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저는 도와 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고 싶으니까... 감염 무서움도 있지만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해요. 이미 이런 무서운 질병을 겪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능력이 충분히 준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참여자 9)

3.6.2 일상생활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해 처음에는 두렵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느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비 간호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변화된 현실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가족과 이웃 및 환경까지 생각하는 등 의식의 확장을 경험했다고 표현했다.

계속 명한 상태로 지낼 수는 없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밤에는 알람 맞추고 자고 낮과 밤을 바뀌지 않게 해야지...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생활 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 보다 경험도 쌓고 미리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원 봉사라도 하고 싶어요.(참여자 1)

제가 메르스 당시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는 몇 명씩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해요...위험했는데 저는 안 걸렸어

요... 손 씻고 개인위생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지침을 잘 따라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9)

엄마도 밖에 안 나가고 저도 집에 있고 아빠도 회사, 집 그렇게 다니니까 가족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녁 먹을 때 서로 얼굴보고 대화에 집중 하니까 가족 관계가 좋아졌어요. 동생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책을 읽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참여자 8)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세상이 각박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챙겨주는 것을 보고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외국은 사재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해서 자랑스러워요... 이번 기회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없어졌잖아요... 동물들을 괴롭히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분들, 노숙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참여자 5)

4. 논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해 갑자기 겪게 된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의 의미들로부터 12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첫 번째 주제모음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산으로 인해 '자신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 확인되었다. Lee 등의 연구[10]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일반 대중들은 메르스 감염에 대해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emotional distress, 침울한 기분, 절망, 불한,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참여자의 90%가 본인 또는 가족이 메르스에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SARS) 발생 당시 홍콩 시민들에게 나타난 49.3%의 비율[11]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Jun 등의 연구[12]에서도 메르스 양성 환자와 접

촉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 관계자들 역시 당시의 경험을 '전쟁'으로 비유할 정도였다. 중국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7].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 모두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을 비롯한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표현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한 불안, 공포, 고립감과 낙인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연

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고, 필요시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비롯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3].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번째 주제모음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립감>으로써, 참여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산으로 인한 '활동제한으로 인한 무력감'을 느끼고 '생활의 질서가 무너짐'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참여자들은 학교에 가지 못

Table 1. Meanings, Themes, and Theme Clusters of the Study

Meanings	Themes	Theme Clusters
Being vigilant about neighboring people Frequently watching and reading news headlines about infected patients Feeling closely the fear of death It's not finished yet until COVID-19 is overcome	Thinking that I might be an infected patient	Increased fear of an infection
Not fully adjusted to wearing mask Washing hands frequently	Observing individual's preventive rules	
It's like a bird in the cage is looking out Feeling strange about life Increased depression due to not going out as I want to	Felling helpless due to limitation of activities	Feeling isolated due to the changed way of life
Isolated from friends due to upside down schedules of day and night Unable to do things despite lots of free time Consoling loneliness by talking on the phone	Collapse of the order of life	
My family's income got cut in half Using up money from savings account due to money needed to survive	Deeply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Feeling perplexed about unexpected circumstances
Loosing part-time job because fingers were hurt Thinking about taking a year off from school	Making a concrete plan of taking a year off from school	
Being frustrated because I am unable to raise questions face-to-face Feeling heavy about the burden of homework Overwhelmed by trying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classes	Feeling uncomfortable about non-face-to-face classes	Not adapting well to the sudden change in classroom instruction
Fearing more about the exams than COVID-19 Concentrating on classes is getting decreasing Worrying more and more about job after graduation	Growing of stress about GPA	
Worrying about the possibility of postponing clinical practice at the hospital Worrying about renting a room in the city where my clinical practice will begin Not having confidence about clinical practice	Complex feeling before clinical practice	Feeling burdened about clinical practice
Fearing an infection at the hospital Wanting to learn directly from the clinical context	Ambivalent feeling about clinical practice	
A friend who was a few years ahead of me in college is now volunteering and looks great Getting courage from the healthcare workers who devoted themselves to patients Willing to go anywhere that need help	Responsibility beyond the fear of infection	Confronting the reality as a preliminary nurse
Striving to live with myself prepared Protecting myself by myself alone Relationship with my family is getting better Thinking about neighbors and the environment	Accepting changes of daily lives	

하게 돼서 생활 방식의 갑작스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활 질서의 혼란과 일상 활동의 무질서로 인해 고립감과 무력감을 맞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언택'(untact), '집콕', '방콕' 과 같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14].

Ha와 Ban[15]의 연구에 따르면, 전염병 감염 확진자들이 겪는 고립감과 무력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고립감과 무력감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양성 진단자와 접촉한 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갑갑함을 느끼며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시간의 흐름마저 더디게 느껴져 힘들었다고 표현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확진자들이 처한 14일간의 자가격리보다는 비슷하지만 정도가 약한 감정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대면수업이 중단된 것이 참여자들의 감정변화에 가장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번째 주제모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으로써, 참여자들의 경험은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 '휴학을 구체적으로 계획함'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19가 200여 개국에 확산됨으로 세계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회복이 더디고 오래 걸릴 것으로 진단된다[16].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참여자들도 이런 사회적인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19의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다[17].

코로나바이러스19는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삶의 양식, 경제생활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18].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감염병 확산기에 학생들은 물론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

여 지원하는 방법이 최선인 듯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번째 주제모음은 <갑작스런 수업방식의 변화에 부적응>으로써, 참여자들의 경험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불편감'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짐'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교육 계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불편한 감정과 스트

레스를 호소했다. 2015년 메르스는 감염력이 광범위하지 않았고, 교육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에 코로나바이러스19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9]. 새로운 교육 방식은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전 세계 대학교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통적인 교육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Park[21]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은 사전학습의 만족도, 학습성과 달성도, 학습지속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학습자 자신의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교육 방식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섯 번째 주제모음은 <실습에 대한 부담감>으로써, 참여자들의 경험은 '실습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해짐'과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이라는 필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임상 현장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여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실습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해 주는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 2015년 간호대학생의 메르스에 대한 지식, 태도, 예방행위 실천 정도 간의 상관성에 관한 Park 등의 연구[22]에서 전염병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행위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한 교육도 절실하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감염성질환 감염관리 교육을 할 때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 지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23].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임상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실습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Kang의 연구[24]에 따르면, 입체적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틀 기반의 통합 시뮬레이션 간호실습모듈을 적용한 결과 만족감과 자신감 및 임상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통합 시뮬레이션 간호실습모듈을 통해 실제와 같은 임상실습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학습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했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임상실습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번째 주제모음은 <예비 간호사로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경험은 '감염 위험을 넘어서는 책임감'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는 두렵고 당혹스럽고 무력한 감정을 느꼈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고 의료 현장뿐 아니라 이웃과 환경까지 생각하게 되는 의식의 확장을 경험했다. Ha 등의 연구[15]에서, 2015년 메르스 감염 당시 자가격리자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힘의 원천을 희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격리라는 갑작스런 사회적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희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바이러스 감염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예비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차 어떤 전염병이 확산돼도 기꺼이 환자들을 치료하러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Park[25]의 연구에서도 메르스 환자들을 간호했던 간호사들은 힘들었지만 환자 간호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수고에 감동하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 역시 비슷한 감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기 속에서도 예비 간호사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바이러스 감염과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고,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점점 참여자들은 이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다보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비 간호사로서의 위치를 자각해 나가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19 시대 간호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기에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질적연구이므로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 더 많은 대학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을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19 시대 간호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at is COVID-19? [Internet]. [cited 2020 July 1]. Available From: <http://ncov.mohw.go.kr/baroView.do> (accessed 2020, July 5, 2020)
- [2]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Internet]. [cited 2020 July 4].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accessed July 4, 2020)
- [3] WOORLDOMETER.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Internet]. [cited 2020 July 4]. Available From: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accessed July 4, 2020)
- [4] M. Fisher, S. H. Choe,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Internet]. The New York Times [cited 2020 March 23]. Available From: <https://www.nytimes.com/2020/03/23/world/asia/coronavirus-south-korea-flatten-curve.html> (accessed July 10, 2020)
- [5] J. S. Oh, Ways to overcome 'corona-blue' [Internet]. The Dong-A Ilbo [cited 2020 May 14]. Available From: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200314/2007856/1/Ways-to-overcome-corona-blue> (accessed July 10, 2020)
- [6] O. K. Cho, S. B. Shin, COVID-19 and Untact-Online Lectures [Internet]. Student Press of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ed 2020 June 30]. Available From: <http://cals.snu.ac.kr/en/board/student?bm=v&bbsidx=10597> (accessed July 11, 2020)
- [7] X. Zhi et 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psychological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during COVID-19 pandemic", Indian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 Vol. 58, No. 6, pp. 426-432, 2020.
- [8] P. E.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9] Y. S. Lincoln,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 Bass Publication, 1985.
- [10] D. H. Lee, J. Y. Lim, H. S. Kang, "The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on General Public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5, No. 4, pp. 355-383, 2020.

[11] J. T. Lau et al., “SARS-related perceptions in Hong Kong”, Emerging Infect Disease, Vol. 11, No.3, pp. 417-424, 2005.

[12] J. N Jun, E. S. Song, E. J. Park, J. H. Seo, S. E. Choi, N. S. Kim, “A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the Experiences of Responding the MERS-CoV outbreak in South Korea”,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 59, 347-384, 2018.

[13] J. A. Jeon, J. H. Lee, “COVID-19 Status and Tasks of Caring about Mind Health”, Healthcare Welfare Issue & Focus, Vol. 375, pp.1-8, 2020.

[14] H. R. Jo, Non face-to-face service spikes as coronavirus spreads [Internet]. The Korea Herald [cited 2020 Feb.27], Available From: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227000717> (accessed July 19, 2020)

[15] J. Y. Ha, S. H. Ban, “Home Isolation Experience of the People Expos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ositive Pati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18, No.1, pp. 34-48, 2017.

[16] L. Jones, D. Palumbo, D. Brown, Coronavirus: A visual guide to the economic impact[Internet]. London: BBC News [cited 2020 June 30], Available From: <https://www.bbc.com/news/business-51706225> (assessed July 17, 2020)

[17] M. A. Sohn, “COVID-19 and Deepening of Contradiction of Capitalism”, The Radical Review, No. 83, pp. 223-255, 2020.

[18] C. K. Lee, “Infectious Disease”, Philosophy and the Reality, pp. 49-69, 2020.

[19] S.M. Kim, “Analysis of Press Articles in Korean Media on Online Education related to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1, No. 6, pp.1091-1100, 2020.
DOI: <http://dx.doi.org/10.9728/dcs.2020.21.6.1091>

[20] S. H. Jang, “New Normal of University Education after COVID-19-10 New Tasks”, Proceedings of Forum on New University Education in an Era of New Normal, Daegu, Nation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Daegu, Korea, pp. 1-27, July 2020.

[21] J. Y. Park,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Strategies on e-Learning Pre-learning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the Flow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7, No.1, pp. 52-63, 2020.
DOI: <https://doi.org/10.7739/jkafn.2020.27.1.52>

[22] J. H. Park, S. J. Chang, S. J. Choi,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regarding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20, No.4, pp.

252-260, 2018.

DOI: <https://doi.org/10.7586/jkbns.2018.20.4.252>

[2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standards for medical-related infection. Cheongju: Hanmibook, p. 81-83, 2017.

[24] J. Y. Kang, “Effects of Integrated Simulation Module for Nursing Students: A Mixed Methods Stud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9, pp. 1217-1235,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9.1217>

[25] K. M. Park,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Social Support, and Field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8, pp. 49-62,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8.49>

이 창 금(Grace Changkeum Lee)

[정회원]



- 2012년 12월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간호학사)
- 20014년 11월 :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공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9년 4월 ~ 현재 :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다문화간호, 간호철학

안 준 희(Junhee Ahn)

[정회원]



- 2015년 2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허약노인간호, 시뮬레이션 교육